

전남도, '전통소리'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광전연서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심포지엄'

전남도가 지역의 강점인 전통소리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음원·음향산업과 융합한 '소리융합 산업화 사업'에 나선다.

전남도가 노스온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문화학과 교수 주관으로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클러스터 조성 비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소리융합 분야 학계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미디어기술 발달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는 소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전남이 보유한 소리자원의 산업적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송요셉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사는 "한국 음악 산업의 동향 및 소리융합산업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전통소리예술·문화자원 관련 디지털 리소스 발굴과 아카이브 구성 등 소리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광훈 전남문화재단 박사는 '전남 소리문화 자원의 현황과 활용방안' 주제발표에서 판소리·민요·농악 등 전남의 풍부한 소리문화유산을 활용, 최근 대중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효과적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소리문화도시 브랜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도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방향' 주제발표에서 '한국 소리 융합형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자원집적, 신시장 창출 등 소리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 토론회는 김하림 조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춘성 전남대 교수, 안남일 고려대 교수, 유대웅 중앙대 교수, 이광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이병욱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정지는 조산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남도는 심포지엄 논의 내용을 정책연구용역에 반영하는 한편, 전통 소리문화 보전, 소리융합 R&D, 소리콘텐츠 생산 및 소비와 관광 등을 통합해 집적화한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전통소리로 시작되는 소리융합산업을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높은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출산·보육 지원 '맘 편한 광주' 우수행정·정책사례 최우수상

광주시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출산·보육 지원 정책이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25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로부터 우수행정·정책 사례로 선정돼 광역단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상식에서 이용섭 시장이 김순옥 여성가족과장에게 최우수상을 전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광주 6월 출생아 수는 69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했다. 상반기에는 4142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3천765명)보다 10% 증가했다. 상반기 6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광주가 광역 시도 중 유일했다. 광주시는 만남, 결혼, 임신, 출생, 육아·돌봄, 일·생활 균형의 6단계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난임 시술비, 한방 치료비 지원 등으로 상반기까지 난임부부 953쌍의 임신을 돕기도 했다. 출생아 1명당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24개월까지 매월 육아수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 100조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선점 나서

동신대서 '마이크로바이옴 웰에이징 사업단 발족식'

전남도가 지역대학의 기술과 풍부한 천연물을 활용, 세계 100조 규모 미래 신산업으로 손꼽히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선점에 나선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 미생물의 집합체다. 비만, 당뇨, 아토피는 물론 암, 우울증과도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이용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동신대학교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사업화를 수행할 '마이크로바이옴 웰

에이징 사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는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권석민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강인규 나주시장, 최일 동신대 총장, 바이오기업 대표, 연구기관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인 나창수 사업단장의 사업단 소개를 시작으로 축사, 투자유치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업 업무협약식,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단은 과기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족했다. 동신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앞으로 사업 관련 핵심·응용기술 연구, 개발과 함께 기술 수요기업 발굴·지원 등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을 한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지난 5월 전국적으로 9개 사·도가 공모에 참여해 전남도 등 3개 사·도가 최종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동신대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 웰에이징 기술개발 사업이 선정됐다. 동신

대의 노화 조절기술과 전남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연계해 마이크로바이옴 식·의약품을 개발한다. 투입 예산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47억 5000만원에 포함해 총 115억원이다.

윤병태 부지사는 "지난 7월 전남도는 천연물산업 성과와 노하우를 토대로 천연물산업 비전선포식을 갖고, 2030년까지 매출 3조원을 달성해 전남을 천연물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필두로 다가올 천연물 식·의약품 산업의 융복합 시대를 전남이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2021년 사회조사 실시

광주시는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관심사 등을 파악해 향후 정책개발과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1년 광주시 사회조사'를 26일부터 9월15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광주시 사회조사' 기준시점은 26일 자정이며,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라 표본가구로 선정된 4905가구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항목은 삶에 대한 만족, 자치단체 특성, 소득·소비지출, 주거와 교통, 노동, 교육, 문화와 여가, 복지 등 8개 부문 76개 항목이며, 조사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 또는 비대면(비밀봉투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역사공원에

4·19 혁명 기념탑 설치

광주시는 25일 광주 역사공원에서 4·19 혁명 기념탑 제막식을 열었다. 광주시는 1962년 건립돼 훼손이 심한 추모비의 원형을 복원하고, 민주 정신을 계승하려고 4·19 60주년인 지난해부터 동구 금남로 공원 내 3·15 의거 표지석과 연계해 건립을 추진했다. 기념탑은 높이 7.6m로, 화강석·청동 부조·스테인리스 재질의 3단 구조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민주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담아 상단에 타오르는 불꽃을 형상화했다. 좌우에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숨진 7명의 인물 초상과 약력을 새겼다.

고종재 4·19 민주혁명회 광주·전라지부장은 "4·19 혁명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는 영원히 없었을 것"이라며 "광주가 그 정신을 발휘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5의거와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서막을 올린 위대한 역사"라면서 "불의에 당당히 맞섰던 의로운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념탑에 오롯이 새겼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25일 오전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탑 제막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뒤 기념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

김만수 동신대 교수 내정

수차례 공모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광주복지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에 김만수(62) 동신대 교수가 내정됐다.

이번 4번째 공모에는 3명이 응모했으며, 복지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2명을 후보자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추천했다. 이 시장은 2명 중 김 교수를 후보자로 결정하고 시의회에 알렸다. 시의회는 다음 달 6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청문회를 거쳐 이 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MG광남새마을금고

창립 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MG뛰어라정기적금 1년 **4.0%** (조건부)

MG NEW 정기적금 1년 **2.6%** (조건부)

상상모바일정기예금 1년 **2.1%** (조건부)

대출 상담 환영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정책자금(햇살론)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상담 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생 애드바

건설공제조합
월산사거리

전현숙 국밥

대성사거리

광주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돌고개역 지점

KT서광주지사
무등사에 연구원

돌고개역 지점

농성 빛어울레 아파트
영동초등학교
월산동 명품 반도유보아 아파트

광주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돌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